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10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희사함喜捨函을 치위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분석적인 가르침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무소의 뿔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늡음과 죽음에 대해
5. 법정 스님 흔적
독서 카드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지식의 가르침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10월 엽서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10월 1일 발행, 통권 332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희사함(喜捨函)을 치위라

부처님!

당신의 성상(聖像)이 모셔진 법당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자비하신 당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입을 딱 벌린 채 버티고 있는 불전통(喜捨函)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의 번지(蕃地)는 바로 당신의 코앞입니다.

시정(市井)이나 산중에 있는 절간을 가릴 것 없이 그것은 근래 사원의 무슨 악세서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내려다보실 때마다 얼마나 난처해 하실까를 당신의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 못 보고 있는 성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간판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돈을 넣고 복을 비는 데’라고.

49년 당신의 장광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계셨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이 사교가 아닌 무상한 정법임에도 복덕이라는 게 화폐로써 척도할 그런 성질의 것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낮간지러운 이 괴물은 시급히 철거되어야겠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상(像)이 모셔진 코앞을 비켜서만이라도,

극락행 여권?

부처님!

극락행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무슨 잠꼬대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암흑의 계절 중세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푸닥거리나 일삼는 ‘무당절’에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손꼽는 대찰(大刹)들서 버젓이 백주에 거래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다라니’라는 것을 짊어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야시장도 아닌데 이런 냇두리까지 걸쳐서 “극락으로 가는 차표를 사가시오” 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이 말씀해 놓은 교리를 공부하는 이른바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당신을 파는 이런 짓을 얼굴 표정 하나 구기지 않고 뻔뻔스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에서나 있음직한 흑세무민(惑世誣民)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샴머니즘이 횡행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중세 구라파에서 한동안 치부에 여념이 없던 살찐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면죄부’라는 부적을 만들어 팔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짓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쪽에서는 종교 정책의 한 불씨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이 고장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감축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서는 가끔 역을하게도 미신과 동일하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로 낮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1964년 10월 18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분석적인 가르침

이 글은 1987년 8월 광주여름경전학교에서 행하신 법정 스님의 근본 불교 강의를 발췌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문제 삼았던 과제는 생사의 고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근원적인 과제였습니다. 그 원인을 추구해 본 결과 무명(無明)에 있음을 압니다. 무지, 최초의 무지. 사람이 무지한 데서 업을 짓지 않습니까. 무명·행·식 등 열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인을 낱낱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입니다. 이것을 차례로 순관(順觀)하고 거꾸로 역관(逆觀)해서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근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추구할 때 자기 표준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히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캐내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지 어떤 지말, 그 겉가지만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라

근본 불교는 형이상학적 물음을 지양,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불타 석가모니는 내세적인 것이나,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른 교단에서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나 내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물음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정면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독 문은 화살의 비유를 통해 어떤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을 삶의 본질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불확실한 내세적인 것, 일단 지나가 버린 과거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들 현실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 인도의 사상계에서는 6파 철학이 성행,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부경전, 대가전연 일야현자경(夜賢者經)에는 아래와 같은 일야현자의 계송이 실려 있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진실로 저 염라왕의 무리와 싸움이 없는 날 없거늘 밤낮으로 게으름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한밤의 현자라 하고 마음 고요한 성자라 한다.”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다시 되뇌일 것 없다는 말입니다. 왕년에 그렇게 안 살아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지나 버린 것 다시 되짚지 말라는 것. 또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미리 걱정 근심을 앞당겨 가불해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살라

는 교훈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타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이라는 날이 없어집니다. 그때그때 해치울 일이라면 단박에 해치워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는 것.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각오로써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입니다. 제정신 바짝 차리고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주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경전 읽기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집회를 갖는 것은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루하루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부처님의 제자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전이 살아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한낱 2500년 전의 먼지 묻은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경전을 읽는다면 그 경전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둘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경전의 세계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다 법문 아닌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전을 바르게 읽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연으로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봅시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무소의 뿔 1

63, 64, 65는 걸식할 때의 태도를 말한 것이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카사파(가섭迦葉)와 아난다(아난阿難)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카사파는 아주 검소하고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수행자의 이상으로 삼는 반면, 아난다는 부처님을 시중드는 시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부터 호의와 많은 보시와 공양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대조적이었다. 카사파의 경우는 일부러 가난한 집만을 찾아 다녔다. 그 까닭은, 현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일찌기 복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이다음 생애라도 가난을 면하려면 지금부터 복을 지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밭을 마련해 주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언젠가 카사파는 나병 환자로부터 걸식을 한 적도 있었다. 그는 평생 마른 옷은 입지 않고 다 해진 누더기만을 걸치고 다녔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이 카사파에 의해 최초의 경전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교단에서 차지한 그의 덕과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얼굴이 잘생긴 아난다는 여승들에게나 일반 신자들로부터 대단한 인기였다.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게 된

그들의 덕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걸식할 때에도 부자 집만을 골라 다녔다.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했을 법도 하지만, 자기네가 먹고살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한 집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남에게 보시하기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배려에서였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걸식(탁발)의 태도를 보고 부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말고 차례대로 평등하게 걸식하라고 타이르셨다. 여러 가지 맛을 탐해서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 문전마다 평등하게 고루 음식을 빌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집을 골라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 자체가 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比丘란 팔리어 bhikkhu에서 음역된 말인데 거지란 뜻이다. 보통 거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콧대가 세어 보시나 공양을 받고도 굽신거리지 않는 점이다.

걸식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다. 밖으로는 밥(음식)을 빌어 육신을 돕고, 안으로는 법(진리)을 빌어 중생을 돕는다는 뜻. 보시를 받고서도 그에 알맞은 법을 베풀지 않으면 빛을 지게 된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시은(施恩)이 가벼워야 한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처럼 세상을 살라는 교훈, 지당한 말씀이다. 《숫타니 파타》에 들어 있는 신선한 말씀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대할 때 말의 아름다움에 감사를 느낀다.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숲속의 용맹한 사자처럼, 늘 살아 움직이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청초한 연꽃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숫타니파타》 213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은 성인,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어진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잠잠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서 허위적거리는 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묵은 버릇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새 움이 트는 것이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늙음과 죽음에 대해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1998년 11월 1일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호에서 계속 됩니다.

암으로 죽은 일본의 유명한 내과 의사 있습니다. 천 명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봤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나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썼고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내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낱 업무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내 가족에게는 다시없이 소중한 일인데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을 때 정말 무슨 사무처럼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명이, 한 생애가 막을 내리는 엄숙한 순간인데 하나의 물체로 다뤄진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구조 속에 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의식도 없는데 단지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처치를 합니다. 주사나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한순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단 살 만큼 살고 명이 다해서 가려는 사람에게 그건 고통입니다. 절에서 노스님들 돌아가신 걸 몇 번 목격했습니다.

한 경우는 90세 가까이 살다 돌아가신 노스님입니다. 위독하다 해서 병원에 가 봤더니 완전히 산송장인데 계속 링거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곁에서 상좌들이 주삿바늘을 꽂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스님은 70대에 돌아가셨는데 평소 큰소리 땅땅 치더니 갈 때 되니 정신이 없습니다. 입에다 상좌들이 혀를 깨물지 못하게 재갈을 물려놨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는 스님인데. 그러고서는 아무 정신도 없는 노인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죽을 때 절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좌들 요란 떠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혼자 어디 산골 나무 밑에서 조용히 굶다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살 만큼 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잣불이 사그라지듯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 주삿바늘을 꽂아 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 봤자 며칠 아납니까? 며칠인데 왜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그 고통을 주냐 이겁니다. 그건 죽어 가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실에서 가족들을 다 몰아냅니다. 가족들은 당연한 것처럼 쫓겨 나옵니다. 그리고는 환자에게 아주 차디찬 금속 기계로 인공 소생술을 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대 의술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업무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계 앞에서, 아주 낮은 공간에서 혼자서 외롭게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의사가 자기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친지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파트에는 사람이 죽으면 복도가 좁아서 관이 못 나온다고. 이삿짐 곤돌라를 타고 나와야 한다고. 이웃들은 그걸 모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이유일 것입니다. 업고 나오든 관을 짜서 나오든 다 나올 수 있는데, 편리하니까, 그냥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낮은 공간 차디찬 기계 앞에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게 놔두는 것이 편리한 것인가, 그것이 진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인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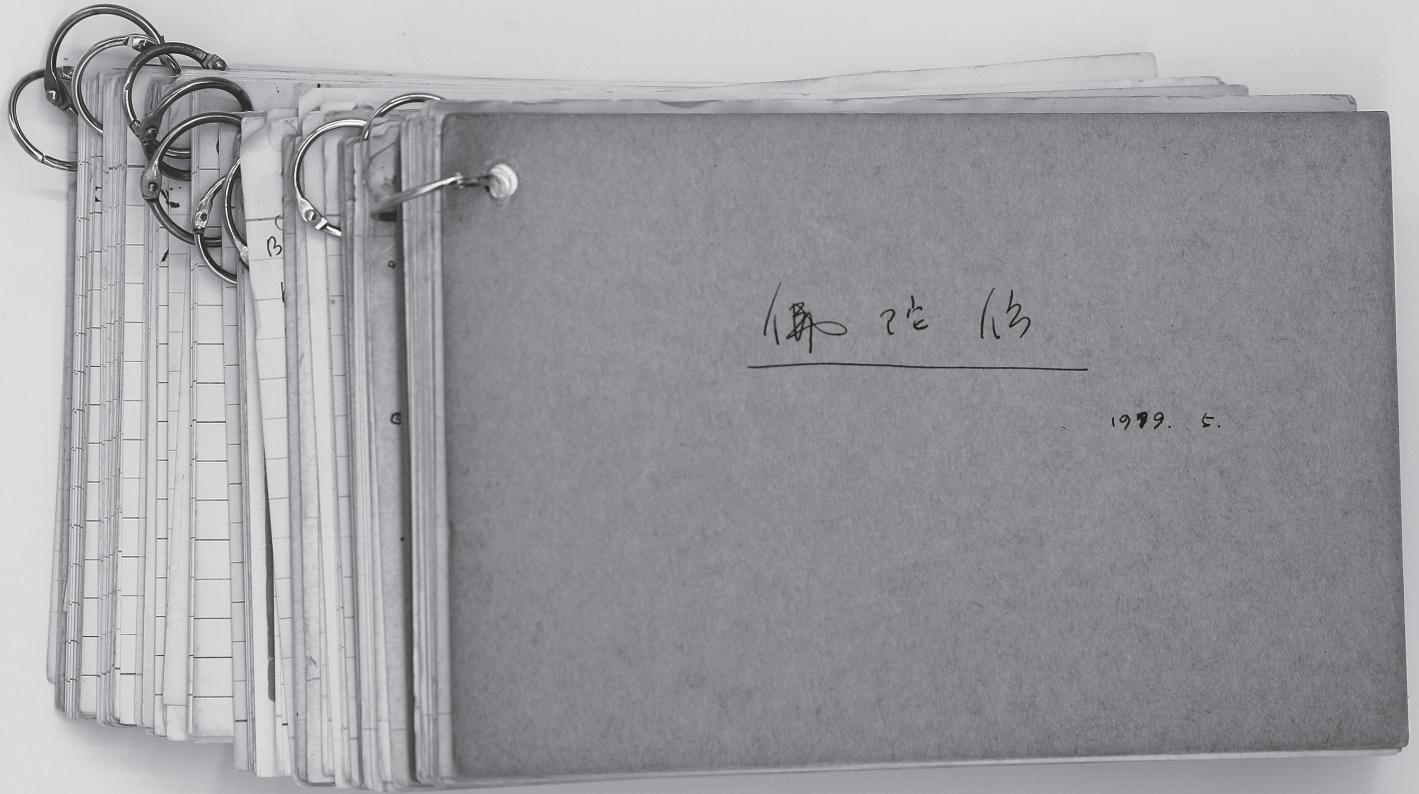
평소 자기가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낮은 가구 안에서, 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이 생의 막을 내릴 때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보살핌 속에서 마음 놓고 평화롭게 돌아가시도록 도와야 됩니다. 죽어 가는 사람이 마음을 탁 놓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독서 카드

지금은 보기 힘든 '독서 카드'.

은사 스님의 독서 카드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여행하면서도, 독서하면서도 잊지 않고 메모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메모는 삶의 기록이었고, 글을 쓸 때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습다. 아무 때고 읽으면 그때가 곧 독서의 계절이지. 여름엔 무더워서 바깥일을 할 수 없으니 책이나 읽는 것이다.”

독서의 계절이 따로 없었지만, 이 가을에는 스님처럼 책 읽고 독서 카드 써 보고 싶습니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선지식의 가르침

선재동자는 이때 선지식의 가르침이
큰 바다와 같아,
큰비가 내려도 가득 차지 않음을
관찰하면서 생각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 날씨와 같아
모든 착한 법의 싹을 자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보름달과 같아
비추는 곳마다 서늘하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여름 설산과 같아
짐승들의 갈증을 달래 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못에 비추이는 햇볕과 같아
착한 마음의 연꽃을 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보물섬과 같아
온갖 법의 보물로 그 마음을 충만케 한다.

또 선지식의 가르침은 염부수閻浮樹와 같아
복과 지혜의 화과華果를 모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용과 같아
허공에서 마음대로 유희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수미산과 같아
한량없는 선법善法の 33천이 그 가운데 머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제석帝釋과 같아
대중이 에워싸 가릴 자가 없으니
능히 이교도의 이수라 무리를 항복시킨다.’

선재는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가
해주성海住城에 이르렀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족 청신사를 찾았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지금 성안의 자기 집에 있느니라’ 했다.

선재는 이 말을 듣고 그 집 문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섰다. 그 집은 매우 드넓고 여러 가지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사면으로는 보배로 장식한 문이 나 있었다.

선재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보좌에 앉아 있는 청신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용모가 빼어나고 단정하며
소복에 머리카락을 드리우고 몸에는
영락瓔珞이 있었다.
그 용모와 위덕의 빛이 불·보살을 제외하고는
미칠 이가 없었다.

집 안에는 의복이나 음식이나 가재도구 등이
전혀 없었고,
단지 그의 앞에 조그마한 그릇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수많은 동녀童女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몸을 단장해
마치 천녀와 같았다.
또한 음성이 고와 듣는 이마다 기쁘게 했으며,
항상 그의 좌우에 머물며
공손하고 살뜰하게 시중을 들었다.
그 동녀들의 몸에서는 미묘한 향기가 배어 나와
사방으로 두루 풍기니,
이 향기를 맡은 중생은 어느 누구도
퇴전退轉하지 않았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한을 품지도 않으며,
아끼고 시기하는 마음,
아침히는 마음,
비뚤어진 마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자격지심,
교만한 마음
등이 일지 않았다.
평등한 마음을 내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고,
계율을 지니는 마음에 머물러
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그 소리를 듣는 이마다
환희에 넘치고,
그 모습을 보는 이마다 탐욕이 사라졌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10월 엽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잘 익은 석류를 쪼개 드릴게요

좋아한다는 말 대신
탄탄한 단감 하나 드리고

기도한다는 말 대신
탱자의 향기를 드릴게요

푸른 하늘이 담겨서
더욱 투명해진 내 마음

붉은 단풍에 물들어
더욱 따뜻해진 내 마음

우표 없이 부칠 테니
알아서 가져 가실래요?

서먹했던 이들끼리도
정다운 벗이 될 것만 같은

눈부시게 고운 10월 어느 날

이 가을에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소망으로 들끓고 있다.
보다 간소하게 살고 싶고,
보다 단순하게 지내고 싶다.
틀에 박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우선
탈피해야 한다.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여간 코로나 여파로 조리 활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봉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서히 봉사자 분께서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목, 금으로 나눠 반찬 2가지를 조리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당분간은 목요일 하루에 반찬 1종류만 조리하고, 대체식품 1가지를 구입해 진행하고, 봉사자 인원이 안정되면 예전처럼 목, 금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찬 나눔 활동은 매주 목요일 9시 2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에서 20~30명의 봉사자가 모여 반찬을 조리해 결연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이 만만치 않지만, 여러모로 도움 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찬 조리 메뉴는 8월 넷째 주 '소불고기, 컵라면', 9월 첫째 주 '제육, 장조림, 깻잎', 9월 둘째 주는 추석 명절에 맞춰 '명란젓, 사골곰탕, 미역국, 참치, 황도 캔, 뉴케어, 구운 달걀, 김 2봉, 초코파이'로 조금 더 풍성한 반찬을 준비하였으며, 9월 셋째 주 '얼무김치, 취나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신성현 간사가 2022년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뜻한 영상·웹툰·이야기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촬영을 하고 장시간에 걸쳐 편집하는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 자원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는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역 부근에 있

는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급식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식탁 정리, 수저 전달, 배식, 식기 세척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과 포항 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망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서 취약층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 원과 무이자 보증금 용자를 지원하는 것에 2,58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 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지상인 일반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면 5,000만 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 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보증금 총액은 5,000만 원을 넘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새 보증금을 마련해 살 곳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 안에서 저금리(1% 수준) 긴급 대출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만발식당 모든 봉사자들이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정 스님 책 읽기 필사 모임 참가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는 마음을 청정하게 맑히는 마음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 들끼리 법정 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기는 "필사·책읽기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하지만 글의 온기를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벼운 마음은 작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움직입니다. 필사 모임을 통해 법정 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청정한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필사하면서 마음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자원 활동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할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생태 사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들은 우리 꽃과 야생화 가꾸기를 비롯해 화단에 물 주기, 잡초 제거, 낙엽 정리, 거미줄 제거, 물청소 등 길상사를 안팎으로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길상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분에게 손편지 답장을 해드립니다

길상사 경내 가장 위쪽에 있는 '법정 스님 진영각'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스님 진영에 심배를 올리고, 소소하게 전신된 유품을 관람합니다. 잠시 텃마루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달래기도 하고, 방명록에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묵묵히 남겨 놓곤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과 더불어 소소한 고민을 적을 수 있는 '공감 엽서'와 '향기 우체통'을 배치해 두었는데, 익명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사연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사연을 '향기 우체부' 봉사자들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은 후 정성껏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향기 우체부 봉사자들은 사연을 읽고 답장을 쓰다 보니 손 편지라는 매개체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라니 다원(지장전 전각 1층)에도 '향기 우체통'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조용히 차 한잔 마시다가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공감 엽서에 사연을 적어 향기 우체통에 넣어 두면 향기 우체부 봉사자가 손 편지 답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각종 SNS가 보편화하면서 손 편지가 사라지고, 사람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가는 언택트(untact) 시대에 비록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온(on)택트 손 편지로 소중하고 따뜻한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 제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 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10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수)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중앙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

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옥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에 문의.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0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9월~11월 다라니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3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 중앙절(사업 성취 발원 기도)

● 일시 : 10월 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코로나 등 각종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중앙절 사업 성취 발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이 난관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0월 3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불교 입문 신도 기본 교육

● 수강료 : 3만 원 ● 시간 : 13:30~15:50

기수	날짜	비고
41기	9월 21일, 28일(수)	총 2주 과정
42기	10월 16일, 23일(일)	
43기	11월 16일, 23일(수)	

● 경전반 능력경

● 수강료 : 5만 원 ● 시간 : 13:30~15:50

날짜	비고
11월 13일, 20일, 27일 12월 18일, 25일	총 5주 과정 (매주 일요일)

● 10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10월 1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13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10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